

람사협약이란 자연자원과 서식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입니다. 이 협약이 체결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주 먼 옛날

강 유역을 중심으로 여러 문명이 발달했다



산업혁명이후

강 유역이 매립되어 주택지·공업지대로 변하기 시작했다.

보전 재생

물새 서식지 뿐만아니라 우리들의 생활환경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생태계로서의 습지를 보전하고 재생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이용

람사협약에서는 산업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룬 보전을 위해서 습지의 「현명한 이용」(wise use)을 제창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이용이란 습지의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얻어진 혜택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교류 학습

람사협약은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서 주민들의 교류와 정보 교환, 교육, 보급개발활동을 해나갈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강이 오염되면서 많은 생물체가 조금씩 모습을 감추게됐다.



1971년2월

이란의 카스피해 호반 람사에서 18개국의 대표가 모여, 「특히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성을 가진 습지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다. 이것이 「람사협약」이다. 일본은 1980년 람사협약에 가입했다.

람사협약체결국



체결국수 : 152개국과 지역

협약등록습지 : 1, 608개소

총면적 : 140,123,652헥타르

*일본의 약3.5배, 신지코·나카우미의 약9,000배 면적.

(2006년 6월 13일 현재)